봉녕사 청년회 재창립…"불자로 살겠습니다"

9월 7일 대적광전서 창립법회
2013년 쇠퇴 후 28명 재가입
진상 스님 비롯 대중스님 축하
9월 28~29일 템플스테이 예정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원 봉녕사는 9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이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봉녕사 청년회가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청년 불자들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9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청년회에는 수원 지역 인근 대학생·청년 불자 28명이 가입했다. 이 자리에는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율주 적연 스님, 최지곤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회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봉녕사 대중스님 전원과 신도회 임원진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봉녕사 청년회는 2006년 당시 주지를 맡았던 묘엄 스님에 의해 창립됐다. 활발한 운영을 이어오다 2013년, 환경적 어려움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재창립에 원력을 낸 건 지금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다. 청년 불자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 몇몇은 부설 거사회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회 재창립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 등 SNS로 청년 불자들을 모집했고, 1달 여만에 28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중에는 제2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가입을 결심한 청년도 있었고, 불교가 궁금해 처음 불교를 접한 이들도 여럿이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각양각생 청년이 모였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하나였다.

이날 청년 불자들은 발원문을 봉독하며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 인연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라건대 법우들 모두 항상 따뜻한 마음과 고운 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법의 도반이 돼 정법 속에서 정진하게 하소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그와 동시에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또한 같이 안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이 시대의 행운아"라고 격려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통해 여러분은 확신과 신념에 찬 미래를 걸어가길 기원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고정불변의 실체에 포박당하지 말고,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들은 청년들에게 책 '연꽃으로 오신 묘엄 스님' 상·하권과 합장주, 꽃다발을 선물했다. 창립법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일우실로 이동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청년회 지도법사를 맡은 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도연 스님이 자기소개와 향후 일정을 공지했다. 청년회는 9월 28~29일 봉녕사에서 템플스테이로 첫 활동을 펼친다. 불교 명상, 경전 독송, 사찰음식 배우기, 불교 다례, 차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불교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사회 소속으로 신행활동을 이어왔던 임경찬(31) 씨와 정송담(29) 씨는 또래와 함께할 수 있는 청년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임경찬 씨는 "청년회에서 젊고 효율적인 신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봉녕사 청년회가 널리 알려져 도반들도 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송담 씨는 "청년회가 없어, 거사회 회원들과 함께 활동했는데 많이 조심스러웠다. 청년회에서는 주체적으로 또래들과 신행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교가 알고 싶어 직접 회원 신청을 했다는 박현호(32) 씨는 "올해 봉녕사에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그 인연으로 불교에 호감이 생겼고, 궁금했다"며 "어떻게 불교를 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청년회가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주 흥륜사, 이차돈 1497주기 추모다례

9월 7일 경내 특별법단서



경주 흥륜사(주지 법진 스님)가 이차돈 성사 149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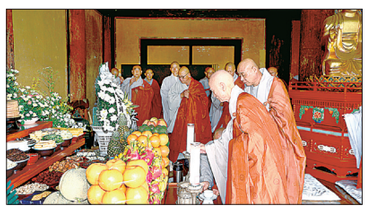
흥륜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흥륜사 옛 법당터가 발굴조사 중임을 밝혔다. "학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조사를 마치면 도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조사와 더불어 흥륜사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선방 운영과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재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은 "이차돈 성사의 순교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고 융성할 수 있었다"면서 "신라에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이차돈 성사의 원력을 인간의 사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래지에 들어서야 그 원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법장 대종사 19주기 다례재

9월 10일 경내 대웅전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9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학술원장 정묵 스님 등 문도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이 좀 더 오래 계셨다면 우리 산중과 종단에 큰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 "어려웠던 시기에도 수덕사가 기반을 만들 수 있던 것은 법장 스님의 신심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추모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의 기일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대중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불교聯,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

9월 11일 창원 성주사서



창원시 불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일구기 위한 자비나눔법회를 개최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9월 11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3회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추석 선물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 전달식에는 신다혜 마산제일여고 학생 등 학생 70여 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학생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자비선물세트와 햅쌀 4kg, 두유 세트 등을 선물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나눔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주불교합창단聯 제5회 합창제 성료

청주시불교합창단연합회(단장 홍정선)가 9월 8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올해로 5회를 맞는 청주시 불교연합합창제를 성료했다.

합창제에는 △관음사 무디따 합창단 △마야사 룸비니 합창단 △평화사 가릉빈가 합창단 △태고종 연꽃합창단 △풍주사 아사미 합창단 △월명사 달빛소리 합창단 △용화사 바가바 합창단 △명장사 관음합창단 △제주 보림사 금강불음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부처님 법음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밀양 금토산 약수암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

밀양 금오산 약수암이 천일기도 법회를 회향하며 불사리대탑과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약수암은 9월 8일 경내에 새롭게 조성한 불사리대탑 앞에서 대탑과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를 진행했다.

약수암 회주 환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한지 54년의 세월동안 많은 불사를 해오다가 오늘 불사리대탑과 문수·보현보살의 점안식을 봉행하게 됐다"며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 '깨달음 사회화' 위해 머리 맞대다

9월 8일 전주 수현사서
8차 사부대중 원탁회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 사부대중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불교미래본부(공동본부장 평상·화평 스님)가 9월 8일 전주 수현사에서 제8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주창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정수사 효진 스님, 남원사 관성 스님, 남고사 석초 스님, 심곡사 정안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곤 사부대중 원탁회의 사무국장이 발표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보고'를 통해 △우리는 왜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를 준비하는가? △1995년 월주 대종사가 주창한 '깨달음의 사회화' 정의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와 재가불자들이 한 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른 교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며 "전북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해 환경과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마중물이 되자"고 밝혔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주 대종사의 유지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전북미래본부는 사부대중이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도로 미래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사부대중도 관심과 협력으로 전북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불교미래본부는 오는 10월 19일 금산사 개산대재에서 '깨달음의 사회화' 시즌2 선포식을 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케스트라 선율로 늦여름을 물들이다

9월 7일 완주 송광사서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늦여름 밤, 완주 송광사가 오케스트라 선율에 흠뻑 젖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는 9월 7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송광백련나비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권민식)가 출연해 송광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늦여름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사진〉

지난 2011년 칠석 사랑 음악회로 시작된 '송광백련나비채 음악회'는 그동안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지역주민들은 클래식 음악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들과 소통해왔다.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으로 막을 연 이날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박연민, 바리톤 김성결, 첼리스트 윤석우 등이 연주에 나섰다. 이들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마단조 등 명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욕망을 비워내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며 "나비채 음악회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채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악회에 앞서 경내 사운당 앞마당에서는 지역 기관장과 주민들을 초청해 연 음식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 행사도 개최됐다. 송광사 연밭에서 채취한 연을 주요 식재료로 준비한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은 즐거울 소(笑), 적을 소(小), 푸성귀 소(蔬)의 3가지 '삼소식'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이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는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유남희 송광사 신도회장, 유인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학위수여·평화기원 법회

9월 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서



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대승통)이 9월 7일 캘리포니아 국제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및 국태민안 국난극복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구 인터불고호텔 즐거운 홀에서 열린 1부 캘리포니아 국제대 학위수여식과 2부 국태민안 국난극복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방종석 캘리포니아 국제 총장은 세계불교교황청 대법황 향덕 존자에게 아시아 태평양 명예총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법홍 법사에게 한국명예총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향덕 존자, 법홍 법사 등 스님 14명이 명예박사 학위증서와 학위패를 받았다. 대봉 스님과 법성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고 인연 스님 등 17명의 불자가 캘리포니아 국제대 표창장을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은사, 아미타불 조성불사 회향

9월 7일 경내 극락보전 일대서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9월 7일 경내 극락보전에 아미타불을 새롭게 조성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을 증명법사로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한 후 보물 제1340호로 지정된 천은사 괘불탱화(모사본)을 박물관에서 이운해 '2024 천은사 괘불재 및 아미타불 조성 복장불사'를 진행했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천은사가 100~200년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기도정진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